

지역 소식통

고창소방서, 산불 예방
각별한 주의 당부

고창소방서(서장 이경승)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고창소방서는 △논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금지 △입산 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자제 △담배꽂초 무단 투기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씨 관리 철저 △화재 발견 즉시 119 신고 등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산림 인접 마을과 화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마을 방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산불 예방 분위기를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고창소방서는 앞으로도 계절별 화재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지속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보건소, 홈페이지

e-신청 서비스 구축

부안군은 군민 편의 증진과 비대면 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소 홈페이지 내 e-신청 서비스 지원을 구축하고 2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신청 서비스에는 기존 방문접수만 가능했던 16개 의료비지원 사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 형태로 첨부하여 신청 절차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부안군보건소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청 접수 및 서류 관리의 전산화를 통해 행정 처리의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시민과의 대화 본격 시작

23일 정우면·신태인읍 시작으로... 읍·면·동 직접 찾아 소통의 자리 마련



정읍시가 시민 중심 행정을 완성하기 위해 23일 정우면과 신태인읍을 시작으로 오는 3월 16일까지 관내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민과의 대화'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행사는 각계 각층의 시민을 직접 만나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자유롭게 질문과 건의 사항을 주고받는 열린 소통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과 함께 열어나가는 정읍의 미래'라는 슬로건(구호) 아래 진행되는 이번 방문은 23일 정우면과 신태인읍에서 시작했다. 행사장에 모인 시민들은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 개선안부터 지역 발전을 견인할 굵직한 정책 제안까지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며 시정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여줬다. 이 자리에서 이학수 시장은 시민들의 건의 사항을 주의 깊게 경청한 뒤, 동석한 국·소장들과 즉석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순회 일정은 24일 이평·영원면, 25일 고부·덕천면, 27일 신의면을 찾는

다. 이어 3월 3일 산내·용동면, 4일 태인·입암면, 5일 연지·농소동, 6일 장명·수성동, 9일 상교·시기동, 10일 초산·내장상동에서 주민들과 만난다. 이후 12일 소성면, 13일 북·감곡면을 거쳐 3월 16일 칠보면 방문을 끝으로 소통 대장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대화를 통해 접수된 시민 정책 제안과 민원 사항을 관련 부서로 이관해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당장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 확보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별도의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은 시정 운영의 흔들림 없는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정읍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 모두의 행복과 정읍의 희망이 함께 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올해, 그동안 시민과 함께 이뤄온 긍정적인 변화를 토대로 더 큰 성과를 완성해 희망찬 정읍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열어가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내장호를 정읍 관광 중심으로 만든다'

국회·지자체·국립공원·공사 등 6개 핵심기관, 사업현장 점검 등



정읍시가 가을철에 집중된 내장산 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장호 일원을 사계절 복합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일 국회와 지자체 등 6개 핵심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10시 내장호 일원에서 진행된 현장 방문에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이학수 정읍시장, 영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박일 정읍시의회의장, 한경동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박태준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내장호 일원을 정읍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미래 관광 청사진을 공유했다.

정읍시가 구상하는 내장호 일원의 미래상은 단순한 개별 사업의 나열을 넘어 치유와 체험, 체육, 접근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광 생태계를 구축한다.

호수와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한

치유 관광 기반 시설(인프라)을 다지고,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체육·레저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정 계절에만 관광객이 몰리는 기존 내장산 관광의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공약사업으로 지정된 만큼, 성공적인 사업 실현에 대한 지역 사회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상태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 등 내장호 개발과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 기관이 모두 참석했다는 점 자체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맞춤형 벼 신품종 '달하미' 보급 박차

쌀알이 굵으면서 맑고 깨끗·병에 강한 복합내병성 품종... 내년까지 1500ha로 재배 확대



정읍시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협력해 기후 변화와 병해충에 강한 정읍 맞춤형 벼 신품종 '달하미'를 개발하고, 올해 110ha 규모의 재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 보급에 나선다.

이 품종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수요자 참여 벼 품종개발(SPP) 사업을 통해 거둔 결실이다. 육종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 등이 현장 연구에 직접 참여해 정읍의 재배 환경에 가장 적합한 종자를 찾아냈으며 시민 공모 절차를 거쳐 '달하미'라는 이름이 최종 확정돼 지역 상징성과 참여의 의미를 더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참동진(전주623호)'과 '남찬(전주595호)'을 교배해 만든 달하미는 쌀알을 크게 만드는 유전자(gss)를 지녀 외관이 굵고 맑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산동진'벼의 경우 흰잎마름병, 키다리병 등에 약한 특성이 있는 것과 달리, '달하미'는 벼흰잎마름병, 키다리병,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유전자를 도입해 내병성을 높인 품종이다.

또한 '달하미'는 쌀알이 익어가는 등숙기(9~10월) 고온 조건에서도 현

미 정상립 비율이 72.1%로 나타나, 기존 중대립 품종(25.4%) 대비 우수한 등숙 특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이상고온 현상이 빈번한 재배 환경에서 품질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돼, 기후변화 대응 벼 품종으로서 현장 보급 확대가 기대된다.

지난해 실시된 정읍시 현장 평가회에서도 식물체 형태와 재배 안정성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얻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밥맛 평가 결과 참여자의 84.1%가 신품종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더 우수하다"고 답해 상품 경쟁력까지 입증했다.

시와 국립식량과학원은 '달하미'의 신속한 현장 보급과 확산을 위해 단계

적인 재배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정읍시는 올해 '달하미'를 110ha 규모로 재배하고, 14ha의 재배포를 조성해 보급용 종자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2027년까지 재배면적을 1500ha로 확대해 지역 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쌀 포장 디자인 개발과 홍보물 제작 등 브랜드화 지원도 병행해 '달하미'를 정읍을 대표하는 쌀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다만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재배 농가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질소 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벼가 쓰러지는 도복 현상이나 쌀 품질 저하,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정량을 시비해야 한다. 또한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종자 소독이 필수적이며 수확기에 덥고 습한 날씨나 잦은 비가 이어질 경우 물 빠짐 관리와 재배 수확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학수 시장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브랜드 쌀로 집중 육성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리적표시 명품 고창수박, 첫 정식 시작

본격적인 재배 시즌 맞아... 모종 심기 행사 개최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대한민국 명품 수박으로서의 가치를 공인받은 고창수박이 본격적인 재배 시즌의 시작을 알렸다.

고창군은 지난 20일 무장면 박형남 농가 수박 재배포장에서 관계자와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리적표시 고창 명품수박 첫 정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창수박은 매년 2월부터 3월말까지 17가지 수박 모종 정식이 진행되고, 이날 정식된 수박은 5월 하순쯤 수확되어 2026년산 지리적표시 마크를 부착한 첫 고창 명품수박으로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가 열린 박형남 농가

는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지리적표시 고창 명품수박 출시 기념 경매 행사에서 수박 한 통이 500만 원에 낙찰되는 기록을 세운 주인공으로, 고창수박의 프리미엄 가치를 전국에 알린 대표 농가다 다시 한 번 고창수박 명품화의 상징적 주인공으로 주목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회 개최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0일 부안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1호 안건 '2025년도 사업결산(안)'과 제2호 안건 '기본재산 편입 예의 기부금 사용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사회는 2025년도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 내용을 검토하고 기부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사용이라는 점에 공감해 해당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제3호 안건 '정학급 지원 대상 확대 건의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